창간정신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승리신문

자유율법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1985년 1월 18일 창간 隔週刊 제 907호 The Seungni Shinmun 2024년 9월 1일 일요일

‘수원(水源) 나그네’에 담긴 하늘의 비밀

수원(水源)은 생명수의 근원이므로 하나님을 의미한다. 나그네란 자기 집이 없이 떠도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본래의 당신의 집을 잃어버리고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의 당신의 집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하나님의 본래의 집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그 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에덴동산 천국에 있던 아담 해와의 마음속에 거하고 있었으나 난데없이 도둑놈 마귀가 하나님으로 그 모습을 바꾸어 아담 해와 마음속의 참 하나님을 몰아내고 대신 주인 행세를 하게 되었다. 동시에 아담 해와는 인간 남자 여자로 전락(轉落)하게 되었고 마귀가 인간의 마음속 주인이 되어 나라는 의식으로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정이요 인간의 실체인 것이다. 이른바 선악과(善惡果) 사건의 결과이다.

그래서 최수운 선생도 시천주(侍天主) 즉 하나님을 모셔야 함을 외쳤으니 이는 인간의 현재 상태가 시천주가 아닌 마귀를 모시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하고 있다가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강증산 선생은 ‘동역객 서역객 천지무가객(東亦客 西亦客 天地無家客)’이라고 하였으니 뜻인즉 ‘동쪽에서도 나그네 손님이요 서쪽에서도 나그네 손님이니 천지 어디에도 집이 없는 나그네 손님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그네 신세임을 노래한 바 있다. 그런 까닭으로 도둑놈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이 거할 본래의 집을 되찾기 위해 강증산 선생 이후에 두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한 이유이기도 하다. 격암유록에서는 궁궁과 을을이다. 실제로는 세 사람이지만 중간의 한 사람은 둔갑장신(遁甲藏身) 즉 여인이라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별도의 단체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보통 두 사람을 말한다. 궁궁(弓弓)의 하나님이 전도관(傳道舘)을 세워 을을(乙乙)에게 유불선합일의 도를 전하는 것이다. 격암유록의 「무용출세지장」의 십인생산일남일녀(十人生産一男一女), 「가사총론」의 하락영인생자녀(河洛靈人生子女)는 이를 두고 한 말이다. 하락은 하도낙서(河圖洛書)이며 하도를 태백(太白), 낙서를 소백(小白)이라 하니까 양백성인(兩白聖人)이 바로 하락영인이며 하나님으로서 궁궁이 된다. 궁궁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전도관을 통해 일남일녀에게 도를 전하는 것을 말한다.

▲ 윷판에 담긴 천문사상 _ webzine.daesoon.org/board/view_win.asp?bno=438

「세론시(世論視)」에서는 궁궁이 상진사(上辰巳), 일녀가 중진사(中辰巳), 일남이 하진사(下辰巳)가 된다. 상진사는 자수성가(自手成家), 중진사는 구혼중혼십년(求婚 仲婚十年)이요. 하진사는 성덕악수 화촉동방 금슬지락(成德握手 華燭東方 琴瑟之樂)이라고 하니 풀이하면 상진사 궁궁은 오로지 혼자 일가를 이루니 전도관(傳道舘)을 세워 일남일녀를 낳는다.

중진사는 여인의 몸으로 와서 궁궁의 하나님의 도를 구하며 하진사가 궁궁 상진사의 도를 받아 완성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仲婚十年)을 한다. 하진사는 인간으로서는 감내(堪耐)할 수 없는 온갖 연단을 받아 궁궁의 상진사와 을을 중진사의 모든 기운을 받아 마침내 도성덕립(道成德立)하고 하나님과 손을 맞잡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 정도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즉 궁궁 상진사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어 하나님이 거(居)하게 되니 이로서 상진사 중진사 하진사가 하진사 속에 일체가 되어 소위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게 된 것이다. 바로 십승(十勝) 하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궁궁의 하나님이 을을에게 좌정하면 궁궁의 하나님이 십승 하나님 즉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이 되며 하진사 을을이 백보좌가 되는 것이다.

2면 하단에 계속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91〉

“영생하는 사람의 마음”

영생을 하려면 마귀를 이긴 하나님, 사망을 이긴 하나님이 되어야 하며, 인간 자체가 변하여 사망을 이긴 하나님이 될 때에 영생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영생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것을 봐도 감사, 저것을 봐도 감사하는 마음뿐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마땅한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고로 영생할 사람의 생활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봐도 감사, 저것을 봐도 감사, 이런 일을 당해도 감사, 저런 일을 당해도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하는 사람의 마음의 흐름인 것입니다.*

이기는 삶

우연한 기회는 없다

알렉산더 대왕이 군대를 이끌고 열 배나 되는 적과 싸우게 되었다. 싸움터로 가던 도중 대왕은 작은 사원에 들러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자 장수들과 병사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대왕은 손에 동전 하나를 들고 말했다.

“자, 이제 기도를 마쳤다. 이 기도는 틀림없이 영험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동전을 던져 영험을 시험해 보고자 한다. 이 동전을 공중에 던져 앞면이 나오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뒷면이 나오면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대왕은 비장한 표정으로 동전을 하늘 높이 던졌다. 모두 숨을 죽이고 동전을 주시하였다. 군사들이 떨어진 동전을 보니 동전은 앞면이 위로 올라와 있었다.

“앞면이다! 우리가 이긴다!” 기쁜 함성이 천지를 뒤흔들었다.

병사들의 사기는 단번에 올라갔다. 병사들은 용기백배하여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으로 물러섬이 없이 싸웠다. 그래서 그들은 적을 격파할 수 있었다.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한 장교가 말했다.

“운명이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저희가 이기다니요. 이건 기적입니다. 저희가 열 배나 되는 적을 이겼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말했다.

“그럴까? 그 동전은 양쪽 다 앞면이었는걸! 나는 그저 패배 의식에 젖어있는 병사들의 두려움을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으로 바꾸어 놓고 싶었을 뿐이라네.”

왜 알렉산더와 같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행운이 되풀이되는지를 연구한 결과 운 좋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불확실성을 즐긴다는 점이다. 운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항상 확실한 것만 찾고 불확실한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는데 비해 운 좋은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에 더 많이 관여했다.

타석에 들어서지 않고는 홈런을 칠 수 없고 낚싯줄을 물에 드리우지 않고는 고기를 잡을 수 없으며 시도하지 않고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행운은 용기를 가지고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과학적인 발명이나 발견이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우연한 기회는 평소 자질을 갖춘 사람,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게으른 사람에게 우연한 기회란 없다. 언뜻 보기에는 우연한 기회가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필연적인 결과이다.

성공을 향해 걸어가자면 많은 역경과 난관이 앞을 막는다. 의연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역경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성공은 영원히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연한 기회를 맞이하는 행운도 없을 것이다. 우연한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만 찾아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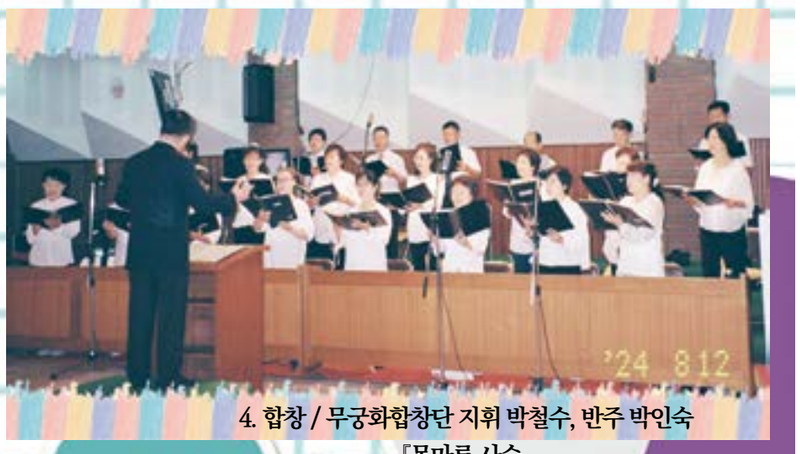
경축 제 94회 성탄절 2부 경축행사

사회 / 김원찬

1. 테마가 있는 노래 / 라준경
『축하하오』, 『아가야 가자』

2. 하모니카 연주 / 김원찬
『엘리자를 위하여』, 『본향을 향하네』

3. 중창 / 본부제단 여청회 강향숙, 원현옥, 신미영, 강하나, 성주희(찬조 출연 소프라노) 『사랑이 예 오셨네』


4. 합창 / 무궁화합창단 지휘 박철수, 반주 박인숙
『목마른 사슴』

무궁화관현악단 지휘자 김성우

5. 관현악 / 무궁화합창단(협연)
『탄생』, 『감사합니다』

영생교 하나님의 성화 승리제단

정도령 5대 공약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우리나라로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3.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4. 우리나라에 풍년 들게 하겠다.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